

트럼프 “김정은, 훌륭한 협상가...난 평화 보길 위해”

‘무자비한 독재자’로 인정... 신뢰성 물음엔 ‘북한 도발중단’ 강조 적 찾아가 협상하는 ‘트럼프 독트린’ ...“전쟁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2020년 대선출마 뜻 밝혀...“민주당에 날 이길 후보 없다”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북미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괜찮았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같이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고 멋진 인물”이라며 “재미있고 역세면서 훌륭한 협상가”라고 칭찬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는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진행자가 김 위원장이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외교관(觀)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확실하고 그는 무자비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며 “내 말이 뭐냐면, (김 위원장을 향한 지적과) 똑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내가 이름까지 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는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임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 그에 따른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말 2년 동안 북한 얘기만 했다”며 “오바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북핵문제)이 큰 문제라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운을 뚫었다.

그는 “갖은 시험(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개입해서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며 “많은 시험, 핵실험이 강행되고 미사일과 로켓이 올라갔는데, 지난 9개월 동안은 미사일 실험도, 핵실험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북

미정상회담을 국제무대에 나서는 기회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비판론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그 전부터 국제무대에 있었다”며 “내가 한 게 뭐냐고? 그를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적으로 인식되는 이들을 과감하게 찾아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트럼프 독트린’ 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자신이 평화주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평화를 보길 원한다”며 “우리는 전쟁을 없애고 있고, 실제로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잘 지내야 할 상대로 지목했다.

진행자가 푸틴 대통령도 거명할 수 있는 ‘무자비한 독재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가 그렇다고 추종하고 있다”며 “러시

아와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에 머무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경쟁자로 보고 싶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그는 “푸틴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친구나, 적이나 묻는데 답하기 너무 이르고 지금은 경쟁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72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건강과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뜻을 들였다.

건강이 좋아 보인다는 등 진행자 말이

뒤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 의지는 충만하다”며 “모두가 내가 출마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가 될 자신을 꺾을 민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내가 다들 아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며 “민주당은 적당한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느슨한 형태로 탈퇴하는, 소위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택해 영국에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완전한 결별을 이뤄야 미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완전 비핵화’ 후속 조치 재촉하는 美...땀들이는 北 22일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지나간 가운데, 미국은 정상회담에 명시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후속 조치를 재촉하고 있지만 북한의 ‘땀들이기’가 지속하는 양상이다.

일본도 ‘덥다 더워’ ... 하루 6명 더위병 사망·1천535명 병원행

서일본지역이 ‘비폭탄’으로 초도화된 데 이어 이번엔 일본 전역에 폭염이 덮치면서 하루 동안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했다.

15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을 훌쩍 넘긴 곳이 속출했다.

낮 최고기온은 기후(岐阜)현 다지미(多治見)시 38.7도, 교토(京都)부 교토시 38.5도, 미에(三重)현 마쓰사카(松坂)시 38.2도,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 37.8도, 오사카부 히라카타(枚方)시 37.6도, 사이타마(埼玉)현 구마가야(熊谷)시 37.2도 등이었다.

수도 도쿄(東京) 역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었다.

교도통신의 집계 따르면 하루 동안 폭염 피해를 봐 구급차로 병원엔 이송



지난 14일 일본 전국에 폭염이 쏟아지며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 발생한 가운데 도쿄(東京) 긴자(銀座)에서 행인들이 양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된 사람은 1천535명이었으며 사망자도 6명이나 발생했다.

폭염은 규슈(九州) 등 서일본지역에도 쏟아져 폭우 피해를 극복하고 복구 작업에 간간함을 쓰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겐 또다른 고통을 줬다.

히로시마현, 오카야마(岡山)현, 에히메(愛媛)현 등 이번 폭우의 주요 피해지인 3개 현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136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 이송됐다.

사망자 47명 ‘최악’ 보트사고로 태국 푸켓 관광 ‘직격탄’

중 관광객 등 예약 취소 붐물...유커 의존도 높은 업계 비상

47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관광용 보트 전복사고로 태국 유명 관광지 푸켓의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15일 보도했다.

퐁끼앗 쿠폰사곤 태국 남부 호텔협회장은 “보트 전복사고 이후 푸켓 지역 19개 호텔의 평균 예약률이 80~90%에서 50%대로 급락했다”며 “예약 취소자는 주로 중국 관광객이며 다른 외국인들도 잇따라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약 취소 사태로 평균 단가 1천 바트(약 3만4천 원)인 객실 7천

300개의 예약이 취소됐다. 이로 인한 손실은 약 700만 바트(약 2억4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푸켓 관광협회의 사라웃 말람 회장은 “태국 해양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한 안전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5일 태국 푸켓 남쪽 해상에서 폭풍우 속에 바다로 나갔던 관광용 선박 2척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총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대부분은 단체 여

행을 왔던 중국인 관광객이다.

사고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구조와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려 사고 수습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침몰한 선박에 남아있던 사체를 인양하는 한편 뿌라웃 짬-오차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선박을 운영한 업체가 중국인 소유로 드러나면서 논란도 벌어졌다.

/연합뉴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